

배울 것 넘치는 장흥군노인복지관

라인댄스·서예 등 스포츠·학습 프로그램 풍성 남성요리교실·커피 바리스타 등 희망자 늘어

올해 1월 신축 개관한 장흥군노인복지관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용객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장흥군노인복지관은 장흥군생활체육회와 연계해서 사교춤, 라인댄스, 그라운드 골프 등의 스포츠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노인재능기부사업으로는 서예, 당구, 일본어 등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를 발굴해 진행하는 영어수업과, KT IT서포터즈사업단과 연계한 스마트폰 컴퓨터 수업은 어르신들의 배움의 열기로 더

욱 뜨겁다.

전남도 공모사업으로 진행 중인 남성요리교실, 커피 바리스타, 발 건강관리, 시니어합창단도 회가 거듭될수록 참여 희망자가 늘고 있다.

요리교실에 참가한 남성 어르신들은 주방 일에 대한 편견을 떨치고 떨쳐내고, 특별로 완성된 요리를 맛보는 시간에는 셰프로서 당당히 자존심을 드러냈다.

커피바리스타 강좌는 창업을 꿈꾸는 어르신부터,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한 어르신들까지 참여하고 있으며, 총 2기 7회차 과정으로 운



시니어합창단



커피바리스타 교육

영된다.

입소문을 탄 발 건강관리 강좌도 교육장이 가득 찰만큼 호응이 높다.

2인 1조를 이룬 참가자들은 신체와 연결된 발바닥 각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상대방에게 지압을 실습한다.

매주 월, 수요일 두 차례 연습하는 시니어합창단은 음표에 맞춰 노래하는 것도 어려워했던 어르신

들이 두 달 만에 화음을 만들어내는 발전을 보였다.

김성 군수는 "노인복지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노년이 보다 풍성하고 행복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군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은 물론, 지역민의 적극적인 재능기부를 통해 노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보다 다양해 지도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장흥=김종민 기자



여수 낭만포차, 18개 포차로 '정상' 운영 제1기 운영자 평가 탈락자 5명 최근 소송 취하

여수 낭만포차가 지난달 28일부터 18개 포차로 정상 운영에 들어갔다.

제1기 낭만포차 운영자 평가에서 탈락해 지난달 법원에 '운영자 선정 운영권 부여계약 체결금지 및 운영권 확인소송' 등을 제기했던 5명은 최근 이를 모두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취하 이후인 28일 여수시는 신규 운영자를 포함한 18개 포차 운영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시는 낭만포차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정월, 친절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

했다.

운영자들은 영업 종료 후 해양공원 청소, 매출액 3% 공익기부 등 지속적인 봉사나 나눔 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서천석 여수법바다 낭만포차 운영위원장은 "낭만포차는 여수밤바다와 더불어 여수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다"며 "맛있고 정결한 음식과 저렴한 가격 등으로 관광객을 만족시키고, 지역민을 위해서도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장흥군, '우드랜드' 더욱 친절하게

김성 군수 '친절한 안내·스머드는 감동 서비스 실천' 강연

장흥군은 최근 전남목공예센터 역불대에서 '우드랜드 현장직원 친절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9일 열린 친절교육에는 김성 장흥군수가 강사로 나섰다.

이날 김 군수는 '친절한 안내·스머드는 감동 서비스 실천'이란 주제로 강연을 가졌다.

김 군수는 친절과 관련된 경험담과 다양한 사례 등을 소개하며, 직원들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

교육은 방문민원, 전화민원 등 민

원 유형별 응대요령을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방문 관광객을 맞이하는 자세와 고충민원 관광객에 대한 처리요령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졌다.

김성 군수는 "상냥한 말투와 환한 미소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사고를 더욱 밝게 만든다"며, "어려운 고충민원도 친절을 다해 풀어가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장흥=김종민 기자

완도군-호남지방통계청 전국 최초 '어업실태조사' 통계 공표 관내 해수면 어가 경영주 1129어가 대상 실시

완도군과 호남지방통계청(청장 문순권)이 전국 최초로 개발한 어업실태조사 통계를 6월 30일 공표했다.

완도군과 호남지방통계청은 지난 11월 지역통계 발전과 지역특화 통계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맞춤형 지역통계인 「완도군 어업실태조사」를 개발했다.

2017년 1월 1일 기준 완도군 관내 해수면 어가 경영주 1129 어가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호남지방통계청에서 조사업무를 대행해 실시한 이번 어업실태조사는 조사업이 직접 대상가구를 방문해 어가의 어업현황 및 의사, 교육, 민족도, 정책관련 희망사항 등 42개 항목에 대하여 면접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생산된 통계는 완도군 어가의 규모, 특성, 고용형태, 양식어가 관련 양식품종, 판매금액과 완도

군 주요 생산품목인 전복, 미역, 다시마 3개 분야 시설량, 종사기간, 생산량 변화, 향후 전망 등 지역의 수산정책 및 지역개발 계획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전국 최초의 어업 관련 지역통계다.

완도군은 이번 통계 결과를 미래 수산인력 양성, 수산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수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개편 등 효율적 수산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3년 주기로 지속해서 생산해 유용한 자료로 축적할 계획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맞춤형 지역통계「완도군 어업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중장기적 수산정책을 수립해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잘 사는 희망완도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자료는 완도군청 홈페이지(www.wand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역구관 미래창조경제혁신센터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진도군, 취약 계층 결핵 이동검진 실시

진도군 보건소가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오는 7월 3일(월) 진도를 용두리와 사정리 경로당에서 결핵 무료 이동검진을 실시한다.

결핵 무료 이동검진은 현장에서 흉부 엑스선과 객담 검사를 실시한 후 검진 결과 결핵으로 진단되면 보건소에서 체계적인 관리와 항결핵제를 6개월 이상 무료 처방 결핵을 사전에 퇴치할 계획이다.

대한결핵협회 광주·전남지부와 함께 실시하는 결핵 무료 이동검진 문의는 진도군 보건소 결핵실(☎ 061-540-6076).

우리나라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결핵 발생률이 가장 높으며, 특히 지난해 결핵 발생 신환자 연령별 통계분석 결과 면역력이 낮은 65세 이상 어르신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노인결핵 조기진단, 예방 관리



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결핵은 결핵균에 의한 공기매개 감염질환으로 신체 여러 부위를 침범할 수 있으며, 처음에는 무증상인 경우가 많고 시간이 지나 병변이 진행되면서 기침, 가래, 체중감소 등 증상이 나타난다.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는 "결핵은 한 번 감염된 사람도 면역력이 저하되면 재감염의 우려가 높으므로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문화 도시 광주는 지금 행복한 독서 중!

빛고을 제12회 독서마라톤

2017. 4. 7 (금) - 11. 7 (화)

대상: 광주광역시교육청 관내 초·중·고등학생 및 광주 시민
구간: 거북이 / 악어 / 토끼 / 타조 / 사자 / 호랑이 / 월계관
신청: http://bookmarathon.gen.go.kr/
주최: 광주광역시교육청 (GWANGJ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